

주한미평화봉사단



PEACE CORPS KOREA

Peace Corps Korea: A Brief History

주한미평화봉사단의 간략한 역사

On March 1, 1961 President Kennedy established the Peace Corps with three goals designed to promote world peace and friendship: Helping the people of interested countries in meeting their need for trained men and women; helping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Americans on the part of the peoples served; and, helping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on the part of Americans.

평화봉사단은 세계의 평화와 우정을 장려하자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1961년 3월 1일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즉 훈련된 남녀들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봉사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The first Peace Corps volunteers arrived in Korea in 1966. Over the course of the next 15 years, approximately 2,000 Americans came to Korea to share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s in a wide variety of programs and projects. Peace Corps volunteers universally report that they received much more from their hosts than what they gave in their service – this was no less true in Korea.

첫번째 진으로 1966년 평화봉사단원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5여년동안에 2,000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방대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평화봉사단원들은 한국에서 봉사하면서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혜택을 받은 것보다는 한국에서 배우고 얻은 혜택이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 일은 한국에서도 같으리라 믿습니다.

Peace Corps volunteers who served in Korea were provided with several weeks of Korean language instruction and cultural awareness as well as project specific training. While the volunteers brought the basic skills needed for their assignment, their training stressed methods to effectively share that knowledge with their Korean co-workers and the people they came to serve. Initially training was held in Hawaii and New Mexico; however, very quickly, Peace Corps learned that it was more effective to provide country specific orientation and training in-country so that instructions could be immediately applied. Any success Peace Corps volunteers had in Korea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ousands of dedicated Korean staff that guided and inspired the volunteers in their service.

한국에서 일했던 평화봉사단원들은 특수프로젝트훈련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다른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여러 주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단원들이 임명된 곳에서 필요한 기본 기술을 배우는 동안, 같이 일할 한국 동료직원들과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운 지식을 효과 있게 전달하게끔 훈련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하와이와 뉴멕시코에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봉사단은 훈련과 특정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파견 나가는 나라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평화봉사단원들 활동이 성공적이었음은 단원들이 하는 일을 인도해주고 격려해준 수많은 한국인들의 헌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한미평화봉사단



PEACE CORPS KOREA

The volunteers were assigned in a variety of projects during Peace Corps' 15 year history in Korea. More than half the volunteers served as English teachers working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y were assigned to universities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as well as teach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every part of the country. During school breaks volunteers would conduct teaching training workshops for their Korean counterparts in each of the provincial capitals.

단원들은 한국에서 15 여년동안의 평화봉사단 활동 중 여러 다른 프로젝트에 파견되었습니다. 반 이상은 문교부 산하에 소속된 영어교사로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어교사훈련지도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해 대학교에도 파견되었고, 한국 곳곳의 중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도 파견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기간 중에는 각 도에서 온 한국 영어교사들과의 교사훈련 워크샵에도 나가 지도하였습니다.

Teaching assignments were not limited to English. Volunteers were also involved in adult education, tourism, rural youth guidance (4-H) programs, special needs education, forestry, vocational training and more.

가르치는 일은 영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원들은 성인교육, 여행교실, 4-H 프로그램인 청년지도교실, 특수교육, 산림, 직업훈련 교육 등등에도 참여하였습니다.

Peace Corps Korea also provided volunteers whose programs were focused in areas of public health. Projects included tuberculosis control, maternal child health, Hansen's Disease (leprosy), physical therapy, laboratory technicians and more. Volunteers served in *Myeons*, *Guns* as well as the provincial levels and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평화봉사단은 또한 보건 분야에도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에도 단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는 결핵관리, 모자보건, 한센스병인 나병관리, 물리요법, 실험실 요원 등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단원들은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는 각 도뿐만 아니라 각 군 또는 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Peace Corps Headquarters made the decision to end its program in Korea in 1981. This decision was the result of reduced budget appropriations by the U.S. Congress and Korea's relative success in its economic development accomplishments.

평화봉사단 본부는 1981 년 한국에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미 국회에서 평화봉사단 예산삭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매우 성공하였으므로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Volunteers went on to make their mark in the world following their service in Korea as U.S. Ambassadors, medical doctors, superintendents of public schools, highly acclaimed educators,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simply returning to the U.S. as better informed citizens of the world.

단원들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끝내고 미국으로 더 나은 한 시민이 되기 위해 그냥 미국으로 돌아오기도 하였으나 많은 단원들이 미국으로 돌아온 뒤 미국대사, 의사, 공립학교 교장, 존경 받는 유명한 학자, 미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 활동하였고 아직도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한미평화봉사단



In 2008, the Republic of Korea initiated a program to provide former Peace Corps volunteers and their family members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ng in a “Revisit Program”; out of the 139 countries the Peace Corps has served in;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offer such a program. This program was fund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Korea Foundation which partnered with the Friends of Korea, a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former Peace Corps Korea volunteers and staff dedicated to fostering cultural awareness and friendship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Nearly 400 of the almost 2,000 former volunteers have participated in the Revisit Program paying their own transportation to Korea. Upon arrival in Seoul the Korea Foundation provided a week of fully paid activities that include Ministry briefings, 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site visits to the villages and towns where the volunteers served so many years ago.

2008 년 한국정부에서 전 평화봉사단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재방문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139 개국에 평화봉사단을 파견하고있으나 한국만이 오로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프로그램은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총당되었으며 Friends of Korea 의 파트너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실행하였습니다. FOK 는 전 평화봉사단원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이들은 미국인과 한국인간의 우호와 문화인식을 증진시키는 일을합니다. 2,000 여명의 단원들중 400 명 가까이 재방문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까지 자비로 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일주일간의 행사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행사에는 각기관의 브리핑과 문화활동외에 단원들이 오래전에 일하던 근무지를 방문하는것이 포함되었습니다.

Today, if you were to ask Peace Corps volunteer who served in Korea how well they achieved the three goals of the Peace Corps, most would say that they are not completely sure how they did with the first goal, but most believe that they did quite well with the second and third goals.

오늘날 한국에서 활동한 평화봉사단원들이 평화봉사단의 세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였느냐 질문을받는다면, 대부분의 단원들은 첫번째 목표는 잘 성취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두번째와 세번째 목표는 잘 성취했다 믿을것입니다.

And they continue to accomplish the second and third goals. Examples of continuing to work on these goals include: the Korea Revisit Program and an active Facebook Group with over 450 members, including former volunteers, Peace Corps Korea staff members, language instructors, and many of the co-workers the volunteers worked with 32-47 years ago. In addition, there is an active Peace Corps Korea alumni organization, Friends of Korea, which is actively engaged in a number of outreach activities with other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Foundation,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Friends of Korea has an active Facebook page, as well as a vibrant website that features an array of information about Korea-related events happening around the US and elsewhere.

그리고 단원들은 두번째와 세번째 목표를 계속 성취해나가고있습니다. 그 예로는 한국재방문프로그램이 한예이며 450 여명이되는 전 단원들, 전 평화봉사단직원들, 한국말선생님들 그리고 32-47 년전 단원들이 같이 일했던 많은동료들이 Facebook 을 통하여 활발하게 소통하고있습니다. 또한 주한미평화봉사단이 동창모임처럼 활발하게모이고, Friends of Korea 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한국경제연구소와 같은 기관과같이 폭넓은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Friends of Korea 는 활발한 Facebook 페이지를 가지고있고 미국과 여러 다른곳에서 일어나는 한국과 관련된 일의 정보를 볼수있는 활기찬 웹사이트도있습니다.

To learn more about Friends of Korea and how you can partner with them, visit www.friendsofkorea.net.

Friends of Korea 에 관하여 궁금하신것이 있거나 같이 파트너가 되고자하시는 분은 www.friendsofkorea.net 으로 들어가보십시오.